

경제

광주·전남 토지거래 급감 땅값은 0.94·1.1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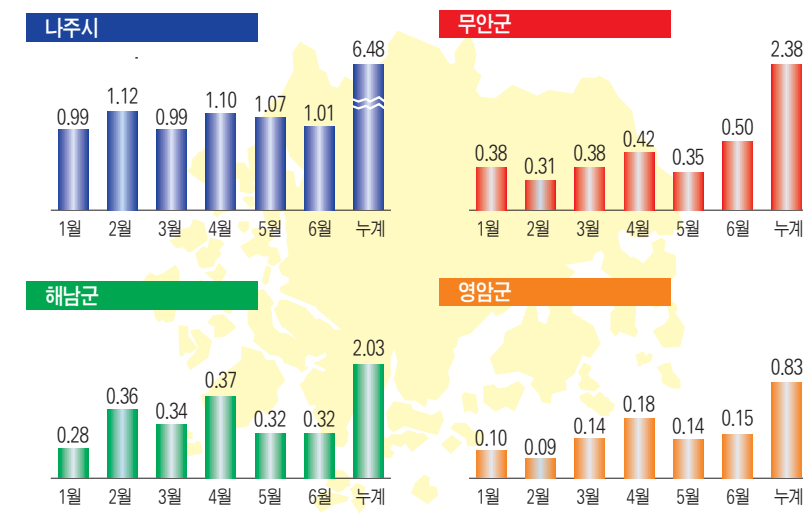
올 상반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토지시장은 정부의 각종 토지시장 안정 대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땅값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후보지인 나주시와 기업도시 후보지인 무안군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 뉴타운개발 등 전국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지가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토지거래량이 30%가량 급감한 가운데 지가는 지난해 상반기 2.672%보다 0.088%p 높게 나타났다. 8·31부동산종합대책과 3·30대책 등으로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계

혁신도시 나주 지난해 11.2% 폭등이어 올 상반기도 6.5% ↑

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땅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반기 전국의 토지 거래량은 필지 수로 14.8%, 면적으로 30.8% 줄었다. 특히 6월 거래량은 21만1천882필지, 6천384만평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6.2%, 44.9% 감소했다. 광주·전남은 나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각각 0.94%, 1.13% 상승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땅값이 무려 11.21% 치솟은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6.48%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다. 무안군과 해남군도 각각 2.38%, 2.03% 올라 전남의 땅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울머어 광주·전남의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6월 44만평이 거래돼 지난해 6월 71만평보다 38%(27만평) 감소했다. 전남도 지난해 6월 1천18만3천평보다 27.6%(281만1천평) 감소한 737만2천평에 그쳐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반영했다. 다만 광주의 경우 지난 6월 서구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잇따르는데 광산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이

■ 2006년 상반기 전남 혁신·기업도시 지가 동향



맞물리면서 거래 필지 수가 4.6%(261필지) 늘어나는 등 전국 상황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서울은 용산(4.83%), 성동(4.80%), 동작(4.66%), 강서(4.61%)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상반기 땅값이 4.19%나 뛰었다. 충남(4.12%), 충북(3.28%), 대전(2.83%) 등의 상승세도 여전했다. 개별지역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이 9.64% 오른 가운데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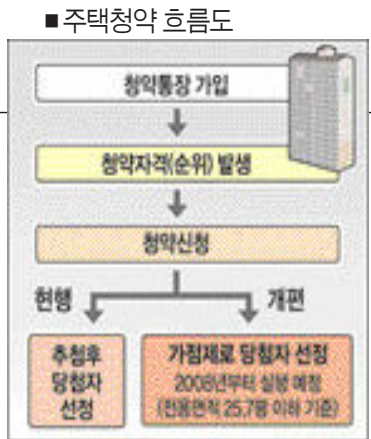
공주(7.3%), 충북 진천(9.43%), 경북 김천(7.12%), 충북 음성(7.11%) 등이 급등세를 보였다. 6월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진천(1.34%), 나주(1.01%), 서울 성동(0.91%), 용산(0.89%) 등이다. 경남 거제는 토지거래허가제 후보지로 분류됐다. 한편 상반기 건축물 거래량은 13만2천323가구로 지난해 6월보다 9.7% 줄었으며, 실거래가 신고는 14만303건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석유, 中 공장 설립 MOU 체결

1 금호석유화학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귀진동(郭金東) 감소 김포집단(GPRO) 회장, 김흥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내 합성수지원료 공장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설립되는 공장은 양쪽이 50:50의 지분으로 각 5천만 달러씩 1억 달러를 투자, 중국 남경시에 있는 남경화학공업원(NCIP)내 6만평 부지에 200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는 2006년 9월 난징에서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생산품목은 합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Polypropylene Glycol), 프로필렌 옥사이드(PO: Propylene Oxide), 코스틱소다(CS: Caustic Soda·염소 및 가성소다) 등이다. 각각 연산 5만t(PPG), 8만t(PO), 10만t(CS)을 생산하게 되며 향후 중국시장을 고려해 추가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주택청약 가산제 전환 어떻게 적용되나



부양가족수·무주택·통장가입 기간 등 활용 대가족·무주택자 주택공급 우대

25일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은 자기 집이 절실한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점제 적용> = 가점제는 인구사회지표(가구수, 연령, 부양가족 수)와 경제지표(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주거수준지표(무주택기간), 제도 지표(통장가입기간) 등 4개 지표가 활용되며 이중 경제지표는 2010년에 추가된다. 2008년부터 2년간은 가구수,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4개 가점항목만으로 동일 순위 내 당첨자를 가린다. 항목별로는 나이, 연한에 따라 1~5점이 부여되는데 부양가족은 가구구성, 자녀수를 별도로 나눠 각 1~3점이 배정된다. 가구 구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

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동거자로 나온 직계 가족(외조부모 포함)이어야 하고 자녀는 직계 비속증 민법상 만 20세의 미성년자(임양자 포함)로 한정된다.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가점치는 가구수 연령이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통장가입기간 13으로 적용되지만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항목이 추가되면 가점치는 가구수 연령 13, 부양가족 23, 가구소득 21, 부동산자산 12, 무주택기간 22, 통장가입기간 9로 바뀐다. <누가 유리하나> = 가점제의 시행으로 청약자를 통해 25.7명 이하 주택을 장만하려던 예·부금 가입자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점제로 볼때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통장가입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진 반면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보완해야 할 점> = 하지만 가점제는 지나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실성이 다소 떨어졌다. 만점자의 기본 요건인 3자녀를 두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수 45세 이상인 가족의 경우 가족 수가 최소한 6명이 된다. 25.7명 이하 주택이 정부가 가족 4명에 맞춰 설계한 국민주택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거주과밀을 유도하는 셈이다. 저소득, 무주택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중에서 평당 1천만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되는나도 문제다. /최경호기자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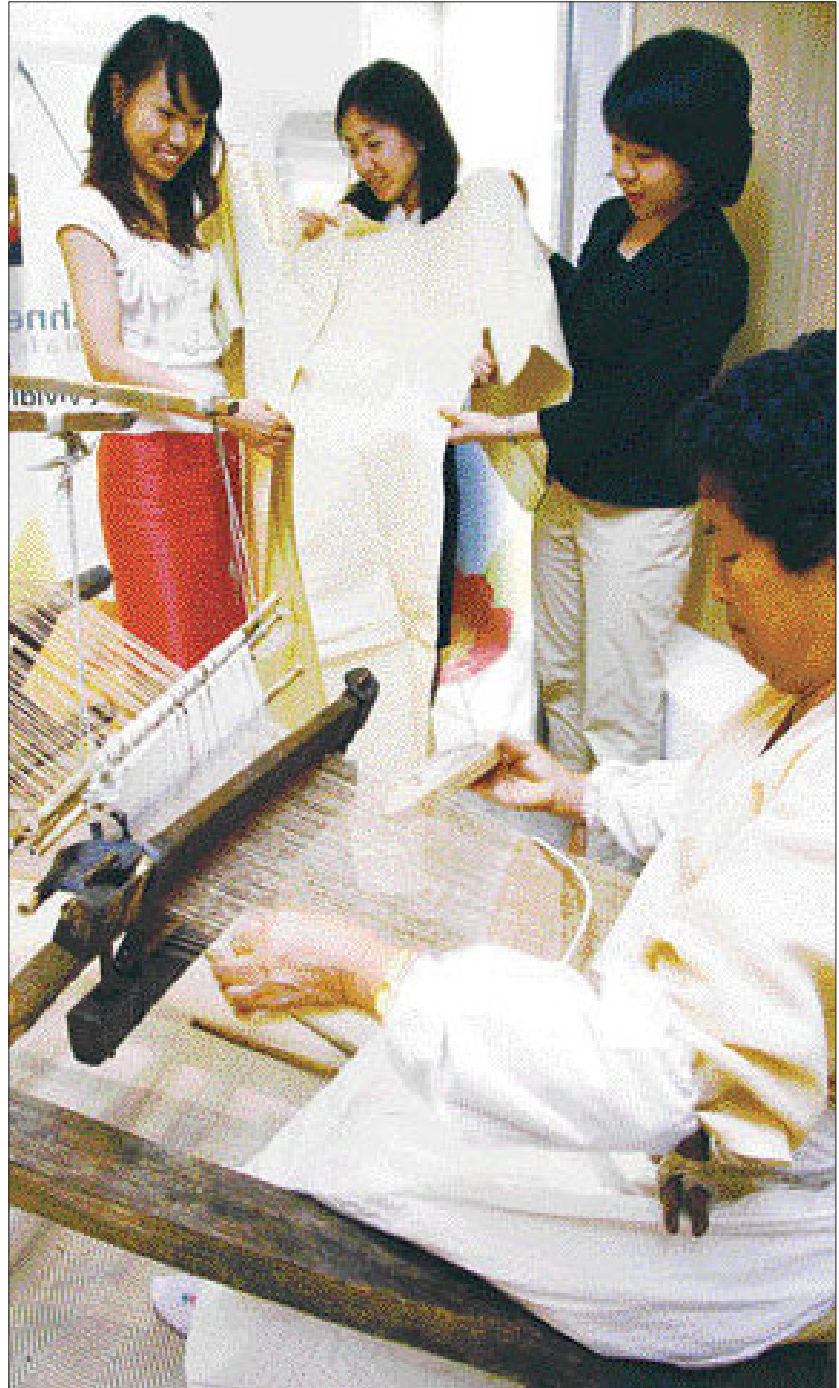
직장인 '세금내는 봉'?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탈세 가능성으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경우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더 많도록 돼 있지만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가 자영업자의 1.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가능성이 높을 때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병목,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납세자 비율 및 세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근로소득인 경우와 모두 사업소득인 경우를 가정해 법정 세부담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근로자가구의 법정 세부담률은 각종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을 때 소득금액의 3.34%, 최저일 경우 6.84%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세부담률이 소득의 평균 13.96%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세부담과 달리

세금부담 자영업자의 1.15배 조세연구원 통계청 가계조사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가구 자영업자의 1.15배로 나타났다. 가계조사 자료 중 세금을 낸 근로자 1천570가구와 자영업자 407가구의 실제 세부담을 다시 분석한 결과 평균 세부담률은 근로자가구가 3.35%로 자영업자가구 2.90%의 1.15배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 세부담률이 자영업자가구 세부담률의 2.24배였고 2분위와 3분위도 근로자가구 세부담률이 자영업자가구의 각각 1.60배와 1.27배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윤달맞이 수의 장만하세요 다가오는 윤달을 맞이해 25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최고급 안동포, 황포, 의주포, 해주포로 제작된 다양한 가격대의 수의 특집전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GDP 0.8% 성장 5분기만에 성장률 최저

韓銀 발표·건설투자 약화 및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예상수준을 크게 밑도는 부진양상을 나타내면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5분기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된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여서 최근 경기흐름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환율 급락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 무역손실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에 비해 0.8% 성장에 그쳐 지난해 1·4분기(0.5%) 이

아모레퍼시픽, 광주 '유방암' 강좌

(주)아모레퍼시픽은 한국 AMOREPACIFIC 유방건강재단(이사장 최국진)을 후원, 광주지역 여성건강을 위해 26일 오후 2시 KBS-TV 공개홀에서 '유방암, 알면 두렵지 않다'를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최명숙(광주현대여성병원) 원장, 소향숙(화순 전남대 간호학과) 교수의 강연과 자가진단법 시연이 마련된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하며, 아모레퍼시픽헤라가 기념품을 제공한다. 2006년 9월 아모레퍼시픽의 후원금으로 출범한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을 위한 유방암 관련 공익재단이다.

삼성, LCD매출 14개월 연속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TV용 LCD 패널 출하량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14개월 연속으로 LCD 전체 매출 1위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24일 발표한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시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4분기에 LCD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9% 많은 36억5천만달러를 기록, 14개월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2분기에 대형 LCD 매출은 31억7천만달러, 출하량은 1천309만대로, 각각 11개월과 9개월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의 2분기 TV용 패널 출하량은 1분기 대비 34%의 성장을 기록했다.

소니, DSLR카메라 예약판매 매진

SCS Sony Korea Corp. 소니코리아(대표 윤여울)는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소니의 첫 DSLR카메라 'a100'의 예약판매 매가 시작 4일만에 종료되는 등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달성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 단독 현장판매실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100을 출시한 소니는 200대를 1시간만에 판매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에 출시한 a100은 마운드시스템, 손떨림 방지 기술 등 초니카 미놀타의 축적된 DSLR 기술 노하우와 이미지프로세서, CCD 등 소니의 디지털카메라 부문 감성이 결합된 제품이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처음 DRLR카메라를 사용하는 초급 사용자층을 타겟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시가격은 94만8천원. 문의 (062) 522-2000.



현대차, 美 소비자만족도 22위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의 소비자만족도(CSI) 조사에서 도요타와 포드 등을 제치고 지난 해보다 4단계 상승한 2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도 31위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해 미국시장에서 한국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JD파워가 발표한 CSI 조사에서 총 1천 점 만점에 869점을 얻어 22위를 차지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축판	[총무부/영업부/남품종]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6	062-419-8171
광주삼정기업	삼성전자 진공정수기 세차세출 업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7	062-943-2818
지비인태내세날	무역사무, 통역, 번역	대졸/경력3년	1,600~1,800	07/28	062-352-2030
유광서비스센터	[나주점] LG전자 A/S센터 인턴/데스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512-6212
엘앤에스전주공장	[광주]재경팀 담당자 (대리급·누, 회계/출납·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3-260-1413
사이너스	웹디자인/Java 개발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28	062-234-8755
연호전자	(연호ST)LED부문·도금부문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9	062-973-0772
한일시스템	복사, 제본 출력 담당업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31	062-675-8559
비이오리소스	경리, 회계, 비서업무 담당 여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31	061-755-8722
이더리커뮤니케이션	웹관련 영업, 웹기획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4	042-826-7330
원미	생산직 및 관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04	062-944-525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